

# '아동수당' 사전 신청하세요

### 전주시, 만6세 미만 자녀 둔 시민 대상 내달 20일부터 접수·9월 21일 첫 급여 지급

전주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2018년도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33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정부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오는 9월부터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 1인당 매월 25일 10만원씩 지급된다. 첫 급여 지급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9월

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 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북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 서명을 해야 하며,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급기준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소득과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원, 5인 가구 기준 월 1,702만원, 6인 가구 기준 월 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당 월 65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되며,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가 소득에서 공제돼 소득인정액이 결정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신청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입금된다. 일례로, 첫 번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오는 9월은 추

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되며, 9월 28일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아동수당의 선정기준 등 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조기에 신청해 아동수당의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어선 화재 진압하는 해경** 28일 오전 9시40분께 부안군 공항앞 해상에서 어선 간 충돌로 발생한 화재를 해경이 진압하고 있다.

## 전주시, 취약계층에 희망의 일자리 제공

전주시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28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를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은 총 55명으로, 사업 참여기간은 오는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여 동안이다. 주요사업 내용은 △전주청년 상상 놀이터 운영 △새뜰마을 현장활동가 지원 △△자연생태체험학습원 꽃누리 조성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실업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재산 2억원 이상인 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임 단가는 65세 미만인 경우 간식비 등 부대비용 포함해 1일 5만180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오는 6월 28일과 27일 이틀간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부안해경, 기관고장 모터보트 예인 구조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부안군 위도면 입수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0.7톤, 70마력, 승선원 3명)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해 예인 구조했다. 지난 27일 모터보트 운항자인 김모 씨(42세, 남, 정읍 거주)는 오전 6시에 낚시 및 레저활동차 개인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일행 2명과 격포항에서 출항했다. 입수도 북방 0.5마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김모 씨 등 3명은 오후 12시 32분경 이동을 하려고 시동을 걸

었으나 작동되지 않아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부안 해경에서는 경비함정(103정), 변산파출소, 해경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해경 구조대원 안구조장을 이용하여 모터보트를 격포항으로 안전하게 예인했다. 부안 해경 관계자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개인 보트 등을 이용하는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로, 출항 전 반드시 장비 작동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전주박물관, 내달 25일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잔치' 열어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는 6월 25일 박물관 전시실에서 '제28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잔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이다. 참가 신청은 단체접수와 개별접수로 나눠 진행하며, 단체 접수는 전주 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 소속 학교 담당

교사를 통해 받는다. 개별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되고,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현장접수도 이뤄진다. 출품작은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우수상, 특선, 입선 등을 선정·시상한다. 입상작은 7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내 시민갤러리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20여명은 농번기를 맞아 28일 완산구 삼천동 복숭아 농장을 찾아 과실 봉지 씌우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농번기 일손 부족한 농촌에 도움의 손길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고령농가 봉사활동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직원 20여명, 28일 고령농가 방문 복숭아 봉지씌우기 등 봉사활동 전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전주시 공무원들이 일손이 매우 부족한 농촌현장을 찾아 바쁜 농촌일손 거들기에 나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직원 20여명은 농번기를 맞아 28일 완산구 삼천동 복숭아 농장을 찾아 과실 봉지 씌우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5월에는 복숭아와 배, 포도를 비롯한 과실류의 열매숙음과 봉지 씌우기가 진행되고, 논에서는 모내기가 진행되는 등 연중 제일 바쁜 시기여서 노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등 일손부족 현상을 겪는 영농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삼천동 A농가 복숭아 농장을 방문해 품질 좋은 복숭아 생산을 위한 봉지 씌우기와 과수원 주변 환경정리 등의 봉사활동으로 농가의 바쁜 손길을 거들며 구슬땀을 흘렸다. 앞서, 센터는 병해충 예방과 착색 및 당도향상, 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을 위해 복숭아, 배, 포도 재배 100여 농가에 기능성 봉지 600만장을 공급해왔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 농업 여건은 농번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손 돕기를 추진하여 농사일에 힘든 농업인을 도와주고, 농업현실을 이해하는 농사체협의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살아 있는 한옥건축 박물관' 만든다

### 전주시, 순수한옥주택 보존 거주민 지원 공사비 3분의 2까지 최대 2000만원 지원

전주시가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 속 한옥건축 박물관인 순수한옥주택의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한옥주택 보존을 위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한옥주택의 지붕 수선이나 전통담장 등의 공사에 대해 공사비의 3분의 2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한옥주택 수선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 중 전주한옥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과거 전주한옥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옥을 신축하거나 증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순수 한옥주택만을 대상으로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한옥주택은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에 따라 수선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담장과 대문, 조경 등의 시설은 시설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전주한옥마을에는 빅데이터 분석결과 지난해 110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